

데스크시각



송기동  
예향부장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보여 주신 크나큰 사랑에(에) 감사하며 질리(진리)에 희망을 두고 사라지는(살아가는) 새 날 새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고흥 분침문화 박물관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사진전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두 사람이 소록도에서 40여 년 이타적인 봉사의 삶을 살았음을 한눈에 보여 주는 사진들과 함께 한글 편지, 평소 애용하던 반질고리, 지인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보내기 위해 만든 수공예품, 사택에서 사용하던 의자 등이 전시됐다. 특히 교인 등에게 한글로 토박토박 써서 보낸 편지가 눈에 띄었다. 편지글에는 ‘사랑’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았다.

마리안느 스티거와 마가렛 피사레. ‘큰

‘소록도 할매 천사’가 뿌린 사랑의 씨앗

할매(마리안느)와 ‘작은 할매’(마가렛)라는 애칭으로 불린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11월 소록도를 떠날 때까지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했다. 1960년대 초, 20대 후반 꽃다운 나이에 소록도에 왔던 두 사람은 70살이 넘은 백발 할머니가 돼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한평생 한센인 위해 헌신

두 사람은 간호사로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소록도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으니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극구 마다했다. 기자도 지난 2000년 당시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안느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진 촬영을 하려 하자 손사래를 하며 정중하게 사양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나 활동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려 했을까?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6년 4월 소록도를 다시 찾은 마리안느는 처음으로 가진 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다.

“진짜 특별한 것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를 돕고, 환자를 좋아하고, 우리 43년 동안 진작 소록도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1962년에 여기 왔을 때 우리

나라(한국)도 가난했고 우리나라도 간호원들 부족했고. 그러나 부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군이) 알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최근 두 분의 소록도 헌신적인 삶을 취재하면서 ‘M치료실’과 ‘M관사’(등록문화재 660호)를 찾아보았다. 두 사람의 영문 이니셜을 딴 ‘M 치료실’은 마치 그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기라도 한 것처럼, 당시 사용했던 의료기구와 탁자·의자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께 이곳에서 물을 끓여 분류를 탄 뒤 병실을 돌며 환우들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환우와 마주 앉아 스스로 없었는지 무릎 위에 환우의 다리를 올려놓고 맨손으로 약을 바르거나 고름을 짜내곤 했다. 두 사람이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푸른 눈의 할매 천사’라고 불린 까닭이다.

따뜻한 세상 만드는 밀알

1938년 지어진 붉은 벽돌 관사 역시 두 사람의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느낄 수 있다. 사용하던 방은 아무런 장식 없이 단출하고 소박하다. 두 사람은 환우들을 관사로 자주 초대해 식사를 했고, 생일에는 오븐에서 직접 빵을 구워 축하했다.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록도 한

센인들에게 헌신적으로 40여 년간 봉사를 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타적인 삶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밀알’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를 발판 삼아 고흥 지역이 ‘자원봉사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말이다. 오는 6월께에는 고흥 도양읍 봉암리에 두 사람의 봉사 정신을 잇는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사)마리안느마가렛(이사장·김연준 소록동성당 주임신부)은 남미 볼리비아 산악 마을에 보전 의료 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마리안느마가렛 홈페이지(www.lovemama.kr)를 통해 두 사람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온라인 백만인 서명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3일 오후 현재 4750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이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두 분께 큰 상을 안겨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사랑과 봉사 정신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이기적이라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태 속에서 두 사람의 이타적인 삶을 소록도와 고흥, 나아가 한국 사회의 자산으로 삼자는 얘기다.

/song@kwangju.co.kr

은편칼럼



류 동 훈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문위원

농사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000년 동안 인류는 먹을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배설하면서 번성해 왔고, 자연의 방식으로 재순환을 하며 생존해 왔다. 이 농업이 현대사회에 급중하고 있는 정신적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채소, 과일, 꽃 등 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면서 인간은 자연과 소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평화를 누리는 효과가 있어 원에 치료 등의 치유 농업이 복지기관들에서 시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 과제에 사회적 농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공모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전국에 9곳을 선정하고,

복지의 새로운 대안, 사회적 농장

이후 수요를 파악하여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사회가 품어 안으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농업을 말한다.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실천 조직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 시범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은 농업을 주로 하면서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이탈리아, 네델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복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농장이 광범위하게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보형 제도와 연계하여 사회적 농장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정신신체 장애인들에게 농사짓는 법, 동물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고 실습하게 하여 생명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아가게 하는 사업도 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농사짓는 법도 배우고, 장애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어울림 프로그램도 있다. 지역 로컬푸드 기관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유통시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재원은 교육 수강료, 농산물 판매 수입, 정부 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다각화 하여 운영한다. 일본의 도쿄 근교에 있는 미누마 복지농원이나, 바람의 학교가 이런 방식을 운영되는 복지농원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각종 문화 체험, 미술 치료, 원예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국내에선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이 성공 사례로 꼽힌다. 젊은이들을 모아서 농사를 교육시키는 협업 농장에서 사회 복지를 전공한 젊은이가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치유 농장으로 만든 것이 ‘행복농장’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있는 정신 장애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놀러가기도 하고, 마을 축제에도 어울린다. 지역사회가 더불어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도와준다. 노인 요양원에서 경증의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료도 도와주고,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효도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농촌에는 고령 노인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북 완주의 두레농장에서는 노인들에게 썬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여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영광 여민동락처럼 모싯잎 송편을 만들어 마을 노인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농장도 있다. 젊은이들이 도시 근교 농촌으로 들어가 영농조합을 만들어 농촌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만들고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해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블루 오션이다.

사회적 농장의 대상은 장애인, 노인 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자 치료, 재소자의 교화, 출소자의 사회 적응, 아동들의 교육, 미혼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외국 사례를 보면 사회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농업을 접목시켜 가지 있는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결론마 단계인 사회적 농장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사회가 힘을 모으고,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아름다운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4000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농업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료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고



안 해 온  
전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지난 1월 전북 군산 아산에 유기되어 사망한 5세 여아의 사건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3남매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아이들이 숨진 사건이 연일 보도돼 아동보호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국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2만9671건으로 우리나라에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후 최고

아동보호 체계,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여전히 예산 및 인력,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2016년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이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245일을 일하는 것이 평균이지만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평균 465일, 즉 1인당 363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상담원의 이직율은 30%가 넘고 평균 근무 연수는 1.5년에 불과하다. 당장 올해부터 e아동행 복지원시스템이 가동되면 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증가해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인력 보강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력 보강에만 있지 않다.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1만8700건 중 8.5%에 해당하는 1590건이 재학대로 신고되었다. 아동학

대는 발견에서 그치지 않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예방이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 재학대 문제 외에도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특히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이 개인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시범 적용해 활용하고 있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를 범죄자와 처벌 대상으로 인식해오던 관점에서 전환시켜 가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하고 상담원들이 동반자적 관점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아동과 가족은 배제된 채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제공사 중심의 사례 관리에서 벗어나 대상

자가 함께 참여하고 상담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100대 국정 과제’에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시키고 신고 대응의 조사 영역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고를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구분하는 등 각종 대책들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이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를 벗어나 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비극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사명감만으로 지탱되는 열악한 아동학대 방지 인프라가 아동학대 누수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로 인해, 상담원들이 현장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社說

국회 5·18 정신 담은 개헌 합의안 마련해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며 개헌이 이뤄지면 2018년 11월 19일 제헌절이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사)마리안느마가렛(이사장·김연준 소록동성당 주임신부)은 남미 볼리비아 산악 마을에 보전 의료 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마리안느마가렛 홈페이지(www.lovemama.kr)를 통해 두 사람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온라인 백만인 서명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3일 오후 현재 4750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이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두 분께 큰 상을 안겨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사랑과 봉사 정신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이기적이라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태 속에서 두 사람의 이타적인 삶을 소록도와 고흥, 나아가 한국 사회의 자산으로 삼자는 얘기다.

반가운 공공기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소식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된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 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 점수가 변경돼 불합격됐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된 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끝에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번 사례는 향후 줄을 이을 공공기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부정 합격자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대폭 강화 화운동의 헌법 전문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며 개헌이 이뤄지면 2018년 11월 19일 제헌절이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사)마리안느마가렛(이사장·김연준 소록동성당 주임신부)은 남미 볼리비아 산악 마을에 보전 의료 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마리안느마가렛 홈페이지(www.lovemama.kr)를 통해 두 사람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온라인 백만인 서명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3일 오후 현재 4750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이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반가운 공공기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소식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된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 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 점수가 변경돼 불합격됐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된 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끝에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번 사례는 향후 줄을 이을 공공기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부정 합격자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無 等 鼓

여성들의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남성들 사이에서 ‘펜스 룰’이 미투의 대응법으로 회자되고 있다. 펜스 룰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에서 유래했다. 펜스는 2002년 인도에나 주지사 시절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어떤 여성과도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술을 마시고 느슨해지면 여성을 옆에 두고 싶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때부터 펜스 룰이란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터지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펜스 룰을 실천한 사례가 있다. 2013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출장 중 주미 한국대사관의 파견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여성 인턴을 배제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던 것. 실제로 얼마 뒤 정홍원 국무총리가 태국을 방문할 때는 인턴 전원을 남성으로만 선별했다.

세계에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펜스 룰 실천이 화제를 모았다. 정 회장은 2009년 아내와 사별한 후 업무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수행 직원, 자택 관리 직원 등을 모두 남성으로 교체했다. 심지어 요리와 빨래를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도 남성으로 대체했다. 철저한 금녀주의 생활 방식으로 일명 ‘몽구 룰’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일상에서도 ‘무고한 남성들의 생존법(?)’으로 펜스 룰을 거론하는 남성들이 많다. 여성과의 접촉을 피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불상사는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한 남성이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 달라”며 청와대에 낸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펜스 룰은 여성 배제로 이어져 성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의사 결정을 대부분 남성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펜스 룰이 확산되면 여성들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펜스 룰이 여성들이 평평한 운동장으로 나오도록 막는 펜스(Fence·울타리)가 되어서 안 될 일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펜스 룰

|   |   |  |  |
|---|---|--|--|
| <b>光 州 日 報</b>  |   | <b>The Kwangju Ilbo</b>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   |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
|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   |  |  |
| 편집국안내<br>(대표 FAX 222-4918)<br>편집부 220-0649<br>편집부 220-0632<br>사회부 220-0642<br>사 회 2부 220-0652 | 경 제 부 220-0663<br>(FAX 222-4938)<br>문 화 부 220-0661<br>문화미디어부 220-0664<br>체 육 부 220-0697<br>사 진 부 220-0693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br>(FAX 222-8005) (FAX 222-0195)<br>227-9600 업 무 국 220-0551<br>(FAX 227-9500) (FAX 222-0195) | 02-773-9331 서울 지사<br>(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   |  |  |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